



서양화가 이인호, 전대치과병원에 작품 기증

서양화가 이인호 작가가 전남대학교치과병원에 미술작품을 전달했다.(사진)

3일 전남대치과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병원 4층 회의실에서 황윤찬 전남대치과병원장, 손오봉 관리부장, 김웅용 총무팀장을 비롯해 이인호 작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술작품 전달식을 했다. 이날 기증한 작품은 이인호 작가의 '미인을 만나다'로 2500만원 상당의 50호(가로 80cm·세로 117cm) 크기의 작품이며 치과병원 1층에 설치됐다. 특히 이 작가는 지난 5월에도 전남대병원에 본인의 작품 및 100만원도 함께 기증한 바 있다.

이 작가는 “이 작품은 다육식물을 보고 난 후 삶 속에서 한 번 학습되면 바꾸기 힘든 고정관념의 틀을 부수고 의아스러움을 자극하는 큰 작품을 만들고 싶어 작업하게 됐다”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행복과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건보공단 지역본부, 배식봉사·기부 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천사무료급식소에서 노인의 날 맞이 '사랑나눔 배식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과일(귤) 40상자(1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사진)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따르면 천사무료급식소는 광주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 약 400여명에게 매주 3회(월·수·금요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봉사활동에는 윤정옥 본부장을 비롯한 건이강이 봉사단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식사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말과 함께 설렁탕과 후식으로 곁을 대접했다.

윤정옥 건보공단 본부장은 “따뜻하고 정성이 담긴 식사를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천사무료급식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소외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북부소방, 교육·복지시설에 K급 소화기 배부

광주 북부소방은 지난달 30일 관내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 K급 소화기를 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사진)

K급소화기란 화재 발생시 유막을 형성시켜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소화기로,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하다.

이번 소화기 보급은 화재보험사에서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조성해 추진됐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아동이나 노인 등이 다수 이용하는 교육·복지시설은 화재 발생시 피난에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배부된 K급소화기를 주방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두고 사용법을 숙지해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전남신보,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성료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여수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2일 '금융버스 가드림'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사진)

이번 행사에는 주중섭 전남도의회이 참석해 일일 명예지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사업 관련 어려움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자금 상담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금융버스 가드림'은 전남신보와 광주은행이 협력해 금융취약계층에게 보증, 대출, 재무 상담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금융지원 모델로 이번 행사를 통해 약 50여명의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원스톱 상담과 자금지원을 받았다.

특히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이자지원 사업과 연계해 소상공인들이 2년간 연 3~3.5%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금리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나다운 기자



광주신보, '달빛 동맹 금융지원' 업무협약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신보)은 지난 2일 대구신용보증재단(대구신보)에서 광주은행, 아이엠뱅크(옛 대구은행)와 초광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빛 동맹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

이날 진행된 업무협약식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대표하는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과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 황병우 아이엠뱅크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난 6월 광주신보와 대구신보 간 달빛동맹 업무지원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광주은행과 아이엠뱅크의 출연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신보와 대구신보는 10월 중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나다운 기자



육군 31사단, 주민·참전용사 초청 토의 개최

육군 제31보병사단은 지난 2일 광주·전남 지역주민, 학생, 6·25참전용사, 군인 가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800여명을 초청해 부대개방행사와 통합방위 발전 토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육군주간(Army Week)을 맞아 지역민들에게 육군의 발전된 모습과 사단의 완벽한 임무수행태세를 선보여 대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사진)

1부 통합방위 발전토의에서는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 중심의 통합방위 및 민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긴밀한 협조, 훈련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행사는 군악대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장비·물자 전시 관람, 마일즈장비 체험, 최신 드론 소개 및 시연, 특공무술, 조선대 태권도 시범단 공연, 2작전사 의장대 공연, 병영급식 체험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로 진행됐다.

정상아 기자



제니 금발 덩적… 마가렛 켈리 인종차별 논란

‘블랙핑크’ 제니가 할리우드 배우 마가렛 켈리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제니는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샤넬 패션쇼에 공식 엠버서더로 참석했다.

샤넬의 하늘색 니트와 숏팬츠를 입고 등장한 제니는 금발 머리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인종차별 논란은 이날 패션쇼 현장에서 제니와 켈리를 나누는 모습에서 포착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영상에서 켈리는 제니와 가벼운 포옹을 나눈 뒤 제니의 머리카락을 만지

며 “이거 진짜 네 머리카락이냐”고 물었다.

이에 제니는 “아니”라고 답했고, 켈리는 “진짜 같다”고 응했다.

해당 장면이 공개된 후 일부 누리꾼들은 켈리의 행동이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먼저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덩적 만지는 것부터 무례했으며, 금발 머리를 한 동양인에게 진짜 머리카락이냐고 묻는 것은 대표적인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또 제니가 사진을 찍으면서 뽀뽀를 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자 켈리가 얼굴을 피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곽지혜 기자

‘데뷔 25주년’ 톱모델 한혜진 “모든 분들에 감사”

데뷔 25주년을 맞아 보그와 ‘판매 수익 전액 기부’ 화보를 촬영한 모델 한혜진이 소회를 밝혔다.(사진)

3일 한혜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패션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게 서포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스스로 못 미덥고 불안할 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긴 시간 같은 자리에서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날 투박한 돌멩이 같았던 저에게 수많은 아티스트의 창조적 아이디어로 어엿하게 패션 화보의 페이지들을 장식하게 해준 보그코리아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며 “더불어 이번 25주년 기념 화보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 주신 아티스트분들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혜진은 이날 데뷔 25주년을 기념

한 보그 10월호 화보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혜진의 어머니를 비롯해 배우 이시연, 배정남, 개그우먼 박나래, 방송인 서장훈 등이 함께 했으며 화보는 2025년 달력으로 제작돼 판매 수익은 전액 기부된다.

곽지혜 기자

‘흑백요리사’ 선정 통기스트 악플 피해 토로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연일 인기를 거둬주고 있는 가운데 백수저로 출연한 셰프인 선정 통기스트가 악플 피해를 토로했다.(사진)

선경 통기스트는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난주 화요일(9월24일) 이후 지속적으로 악플을 받고 있다. 한 개의 동영상에 8000개의 댓글이 달렸다”며 “이게 사이버불링(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이 아니라고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적었다.

이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달린 수십개의 악플을 캡처해 아이디와 함께 공개하며 “이것은 내가 받은 댓글 중 1000분의 1도 안 된다”고 밝혔다.

선경 통기스트에 대한 악플은 미국인과 결혼 뒤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조롱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을 비롯해

“애미가 그렇게 가르친 거였구나”, “부모 3대마저 멸할 것”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흑백요리사’ 6화에서 선정 통기스트가 최강록 셰프, 조은주 셰프 등과 ‘백수저팀’을 이뤄 고기요리를 주재료로 한 요리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다른 출연자와 요리 방향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는 모습이 공개된 후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곽지혜 기자

